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2021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가을학기 에스라·느헤미야·에스더

“이 때를 위함이라”
For such a time as this (에 4:14)

9월 7일~11월 30일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건축 현장



호렘산 중보기도로 안전하게 태어난 새생명

〈아프리카 잠비아〉 최성령·조아라 선교사 은혜의 간증

“God is at work!”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저희 부부가 아프리카 잠비아 선교사로 파송 받기 전에 거실에 붙이고 날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억했던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잠비아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해 매일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11월 광림교회에서 파송 받아 잠비아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잠비아는 아프리카 중남부 지방 내륙 국가로 8개 인접 국가의 중심에 있습니다. 잠비아는 아프리카 선교에 있어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고, 이곳에 아프리카 중심의 선교센터를 세우는 사명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척 단계이기에 지난 반년간 선교 활동을 위한 NGO(Kwanglim Mission in Zambia) 설립이 진행 중이고, 센터 건축을 위한 부지에 담장을 쌓았습니다. 저희 가정

은 한국 나이로 7살인 첫째 아들 최지은과 4살 딸 최열매, 그리고 조아라 선교사의 뱃속에 6월 초에 출생 예정이었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과 함께 그곳에서의 문화와 삶을 배우고 적응하며 잠비아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역과 그 시기에 맞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에 저희는 현지에서 출산하기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결정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위협과 불안이 팽배한 시기에 더욱 예수님 앞에 헌신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현지 출산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임신 중인 아내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위한 주사를 맞기 위해 클리닉으로 함께 동행했던 선교사님이 먼저 확진을 받고 이에 저희 부부 모두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임신 중인 아내가 양성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낙심이 되었

습니다. 이때부터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뱃속에 아기도 그렇지만 저희 가정 모두가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상황은 이런 어둠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호렘산 기도회가 진행 중이었고, 김정석 담임목사님을 통해 한국 교회에서 ‘최성령, 조아라 선교사’

를 위한 기도 제목이 많은 성도님들 앞에 섰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이고, 함께 누리는 은혜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호렘산 기도회를 통해 온 성도님들의 기도가 먼 아프리카 땅 잠비아에까지 이루어지며, 조아라 선교사는 무증상으로 무사히 코로나도 지나가게 되고, 현지 시간 6월 14일 오후 건강한 셋째 아이(최시안)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위기와 낙심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기회를 주셨고, 걱정과 불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를 그 지역, 그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생수의 강 같이 흘러가게 하심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그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성령·조아라 선교사(잠비아)

벤엘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벤엘이라 불렀으니...”(창세기 35장 7절)

야곱은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 전반을 보면 평탄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인생에서 형 에서와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였고, 이로 인해 집에서 도망 나와야 했습니다. 도피처였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오랜 섬김의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가 압복강에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형 에서와도 화해하면서 평안을 얻은 후에도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겁탈 당했으며, 그 일에 대해 자신의 아들들이 복수하면서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의 삶은 이토록 평탄하지 못할까?’라고 고민하던 야곱은 30년 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진노를 피하여 도망할 때, 루스광야(벤엘)에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지난날들을 돌이켜보니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어느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벤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신앙에는 변명이 없으며, 시간을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를 깨달았다면 즉각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야곱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그가 위대했던 점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벤엘 곧,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고 도전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 세상의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야곱은 벤엘에 올라가기 전 먼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이방 신앙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의 가족 상당수가 밧단 아람에 살면서 그곳의 문화에 익숙해졌고, 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습관처럼 우상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벤엘을 올라가기 전에 우상을 버리라는 것은 세상의 습관, 관습을 따르던 것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후회할 줄 알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이유, 매일 새롭게 되리라고 다짐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는 삶 가운데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의 습관 혹은 나쁜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습관을 갖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합니다. 좋은 습관은 삶에 유익을 가져오나, 나쁜 습관은 그 삶을 병들게 합니다.

만약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옛 습관을 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습관, 관념들을 버리는 결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

1.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2.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 우리가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자 내

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4.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5.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

라 6.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벤엘에 이르러 7.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벤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8.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을 때 그를 벤엘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더라

둘째,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벤엘로 올라가기 전 두 번째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몸을 씻는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마음도 씻는 것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죄로부터 구별되는 삶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하라는 의미에서 함께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정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죄를 돌이켜 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회개

는 종교의 현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이 곧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슬피하며,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멈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는 회개 앞에 ‘치열하게’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치열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24절은 “너희는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슬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진술하게 내어놓고 돌이킬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정결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의복을 바꿔 입는 것, 즉 낡은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지난 날의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죄로부터 회개했다면, 이제는 삶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곧 삶의 중심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벧전 2:1)라고 말씀했습니다.

악독은 나쁜 쪽으로 사람을 보는 오해나 미움 등을 뜻합니다. 기만은 속이는 것이며, 외식은 위선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기는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것이며, 비방은 누군가를 말로 헐뜯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왜 생겨납니까? 바로 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남을 향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의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낡은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된 삶, 곧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은 과거에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살았던 ‘나 중심적인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다시금 나아가겠다는 결단으로 벤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역사를 일으키시며,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능력을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이 때를 위함이라”(For such a time as this)

2021년 9월 7일(화),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개강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 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에 4:14)

2021년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9월 7일 ~ 11월 30일 까지 12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광림교회 본당 대예배실에서 진행된다. 가을학기 과목은 에스라·느헤미야·에스더이며 주제는 “이 때를 위함이라”(에 4:14)이다.

이번 가을학기 트리니티 첫 번째 과목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과 성전 재건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다.

두 번째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으로부터 제 2의 출애굽이라 불리는 포로 귀환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신앙을 회복하고 재정착해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세 번째 ‘에스더’서는 이방 땅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실존성과 역사성, 그리고 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희망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번 가을학기 트리니티는 일반/통신과정 구분 없이 오전 11시 본당 대예배실 강의만 진행되며,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광림교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석 할 수 있다.

접수는 각 교구 전도사를 통해 받고 있다.

문의: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02-2056-5731)

이상희 기자

포토 뉴스



교회학교 여름행사 ‘예배자 다윗’을 주제로 교회학교 여름행사가 진행 중이다.



청년부 국내교육선교 전국 10개 지역에서 청년부 교육선교를 은혜롭게 마쳤다.



서울남연회 비전교회 후원금 전달식



서울남연회 평신도 자문기구 업무협약식

담임목사 동정



- 8/15 광복절기념 주일예배
- 8/19 남연회 원로목사 위로회
- 비전교회 후원금 전달식
- 평신도자문기구 MOU협약식
- 8/26 남연회 준회원보충교육 개최예배
- 감리교 군중사관후보생 집체교육
- 8/27 기독교역사문화재단 이사회
- 출산돌봄 국민운동캠프 출범 준비위원회 발족식
- 故 방게라 수라지 목사 (인도 선교사) 추모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감리교 미래 지도자를 위한 장학금 수여식

〈서울남연회〉 8월 24일, 광림교회 사회봉사관에서 감사예배

서울남연회(감독: 김정석 목사)는 8월 24일(화) 오후 3시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4층에서 2021년 하반기 서울남연회 장학금 수여 감사예배를 드리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1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이번 장학금 수여는 김정석 감독이 취임하고 나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남연회 22대 중점 사업의 하나로 나눔(나누고 세우기는 서울남연회) 프로젝트와 연계된 사업이다. 이는 감리교회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미자립 및 도약 교회 교역자 자녀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지난 2월 선정된 20명에게 각 200만원씩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도 15명에게 같은 금액이 지원되었다. 장학위원회(위원장 김진홍 목사)는 경과 과

정을 설명하면서, “이 장학 사업은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기 위한 김정석 감독의 깊은 뜻과 의지에서 추진되었다. 지난 8월 5일 장학위원회 모임을 갖고 12명의 일반 장학생과 3명의 감독 특별 장학생을 선발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20명을 선정하려고 했지만 전반기 수령자가 후반기에 지원할 수 없다는 제약과 함께 엄격하게 규정을 지키려고 해서 이번 수여 대상자가 15명이 됐다”라고 밝혔다.

김정석 감독은 말씀을 통해 장학금을 받는 젊은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조언해 주었다. “사도행전 4장12절에는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한다. 오직 예수 그리

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신념과 능력을 주신다. 항상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 은혜와 구원과 능력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쓰임 받게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 감사 예배는 김정석 감독의 축도로 마쳤다. 행사장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했으며, 남연회에서는 최대한 거리 두기를 하면서 마스크 착용과 명부 작성, 체온 측정, 손소독 등 방역 지침에 충실히 따르며 진행하였다.

이득섭 기자



내 인생의 말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호렙산 기도회에 가기 위하여 새벽에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 교회로 향합니다.

오늘도 성전예배가 회복되기를, 환우들이 속히 낫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각양의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성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새벽에 모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2010년에 딸을 결혼시키고 시작했던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4년쯤 되었을 때 쌍둥이를 자연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을 때도 호렙산 시작해서 얼마 안 된 때였고 그 아이들을 낳고 조리원에 있을 때 남자아이가 심한 경련 증세를 보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던 날은 일일기도회를 가기로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잠깐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기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길에 조리원에 들어서 큰 병원 가는 것 보고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올라간 분들과 이 일을 나눈 후 간절히 기도하고 이미 승리했다는 격려의 말을 들으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찰결과는 아이가 클 때까지 두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위험하기는 하지만 해줄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와서 막연한 두려움과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오직 기도에 매달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전히 새벽에 주님께 나와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내년에 초등학교에 간다고 자랑합니다.

간절함으로 호렙산에 오르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올리는 중보기도를 들으시사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박경화 권사
(여선교회총연합회 사회복지국 국장)

“성령님이 하신다!”

〈사랑부 여름성경학교〉 8월 8일(주일) 온라인으로 진행



사랑부는 지난 8월 8일(주일)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주제로 온라인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줌(ZOOM)과 유튜브로 각 가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랑부 학생 60명, 교사 38명이 여름성경학교에 함께 참여했다. 그동안 사랑부 예배는 유튜브로만 중계했는데 이번 여름성경학교에는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고자 줌을 추가했다. 줌을 통해 서로 얼굴을 보며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며 찬양했고, 예배를 드린 후 줌과 유튜브를 통해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다. 줌으로는 서로의 표정을 보며 가위

바위보 게임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으며, 줌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유튜브를 통해 퀴즈를 듣고 전화연결을 해 정답을 맞추는 시간도 가졌다. 오랜만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서로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며 서로 즐겁게 소통할 수 있어서 더 유쾌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사랑부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여름성경학교를 더욱 기대하고 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신청을 받아 ‘믿음 꾸러미’를 210개 제작하여 각 교사와 학생의 가정에 보냈다. 특히 조제약봉투에 맛있는 과자를 넣어서 포

장하는 작업이 손이 많이 갔지만 학생들이 좋아할 것을 생각하며 많은 교사들이 참여해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다.

‘믿음 꾸러미’의 구성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주제에 맞게 과자가 들어간 약 봉투(성령님의 치유하심), 핸드폰 말씀 스티커(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 종이화분(성령님께서 자라게 하심), 핸드 선풍기로 이루어졌다. 분반 활동과 예배 인증사진, 그리고 레크레이션으로 각 팀별 점수를 합하여 오는 9월 사랑부 30주년예배 때 시상할 예정이다.

김현진 전도사(사랑부)

일상은 변했어도 변함없는 믿음의 길로

4선교구 온라인 여름수련회



이열치열(以熱治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년 여름, 광림교회도 말씀과 기도의 열기로 한 여름 무더위를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여름수련회를 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였고 이에 4선교구는 지난 14일(토) ‘4선교구 온라인 여름수련회’를 진행 하였습니다. 사랑부 예배실에서 진행된 이번 온라인 수련회는 처음이기에 어색했지만 처음이라 특별했고, 이럴 수 밖에 없음에 안타까웠지만 이렇게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4선교구 연합회 임원들과 각 교구의 교구장님, 그리고 4선교구 장로님들께서 앞장 서 주셨습니다. 수련회 시작 1시간 전부터 미리 현장에 오셔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스태프들을 격

려해 주셨고 선교구 성도님들께 직접 전화해서서 수련회 참석을 권면 하기도 하셨습니다. 담당목사인 저는 에베소서 6장 23~24절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일상은 변할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변함이 없어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나라와 민족, 교회와 4선교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후 4선교구 연합회 회장 박종석 권사님께서 4선교구의 교역자를 비롯하여 장로님, 교구장님, 연합회 임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ZOOM 참여인원 35명, 유튜브 조회수 1,200회라는

기록을 통해 성도님들의 영적 갈급함을 새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 이후 성도님들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한 선교구라는 신앙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고 기도와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었다고 받은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온라인 수련회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프로그램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프라인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은혜와 감동을 온라인이 대신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쉬움이 있기에 어쩌면 이번 수련회는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4선교구가 이번수련회를 신앙의 동력으로 삼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믿음의 길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내년 여름에는 이열치열,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온 몸으로 느끼게 되길 기도합니다.

정용식 목사(4선교구)



2021년 광림 청년부 교육선교 - ①

'은혜 아니면' 청년 팀장들의 고백



2021년 8월 21일 천안 선교를 끝으로 이번 청년부 여름교육선교, 전국 10개 지역을 놓고 기도도 준비했던 교육선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보고는 각 지역을 품고 선교를 준비했던 팀장님들의 소감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의 팀마다 행하신 일들에 대한 청년 팀장들의 아름다운 간증이 성도님들에게도 전해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김지현 팀장(남양주 지역): "이번 교육선교 팀장으로 선교를 준비하면서 평소와는 다른 비대면 방법으로 진행을 하다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역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팀원들과 회복키트를 준비하고, 전달식을 다녀오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고, 저희 팀에서 전달하였던 위로와 사랑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며, 내년에 있을 교육선교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방승언 팀장(단양 지역):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이번 선교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처음엔 첫 팀장을 맡아 굉장히 부담을 느꼈는데, 그때 주신 주일 설교 말

씀이 선교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해보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 너무나 짐이 무거웠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모습을 기대하니 그제야 무거운 짐은 사라지고 즐겁게 선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차준희 팀장(하남 지역): "코로나19로 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춰 열어주신 선교의 길에 선교를 향한 마음을 주신 팀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부담이 큰 힘으로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존 국내 선교와는 조금 달랐지만, 이번 선교를 통해 나와 내 주변에만 머물러 있던 기도를 한국교회를 향한 기도까지 넓혀주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상혁 팀장(이천 지역): "선교를 시작할 때 비대면이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란 인간적인 생각에 참 막막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니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짐을 체험했습니다. 내년 선교를

기대합니다!"
서영창 팀장(대전 지역): "비대면 상황이라 더 많이 만나지 못한 것,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 더 나누지 못한 것이 끝내 마음에 걸립니다. 그럼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도와 주신 분들, 힘써 행해주신 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를 체험한 분들 덕분에 이번 선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욱제 팀장(천안 지역): "이번 선교를 다녀오면서 기도의 힘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여러 부분이 잘 되지 않아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기도를 통해 힘들었던 부분이 잘 풀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천안팀은 zoom을 통해 비대면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잘 참여해줄까에 대한 고민도 있어서 이 부분도 주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프로그램이 너무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기도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신앙 간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교구장으로 불러 주셔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맡겨주신 청년들과 함께 청년부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1년반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을 간략하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받은 은혜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해결해 주신다는 은혜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섬기기위해 하나님께서 교구장으로 불러주셔서 맡겨주신 바에 충실하게 임하는 중입니다. 최대한 청년들의 삶의 문제와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 복잡한 문제들을 맞이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같이 고민을 나눈 청년들과 다다르게 되는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무책임한 결론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맡겨드릴 때마다 저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삶에 지쳐 쓰러진 사람에겐 새로운 힘과 사명을 주셨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은 사람들에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이제는 어떠한 문제라도 걱정하지 않고 담대히 받아드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 앞에서 생생히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교구장으로 임명된 후에 주위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이제부터 고생 많이 하겠다'였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청년들의 삶과 신앙의 문제들을 같이 나누는 자리다 보니 속장을 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힘으로 이런 문제들을 감당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했으나 번번히 제 뜻과는 다르게 일이 꼬였습니다. 교구장을 그만둘까라는 고민을 시작할 무렵 하나님은 주변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속원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키워가고 노력하는 속장들, 그 속장들이 지지 않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지구장들, 아프고 지친 청년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심방하여 위로해주는 전도사님까지. 이미 하나님은 제가 지지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지금은 제게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고민하며 힘을 내어 코로나 속에서도 열심히 주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교구장 임기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실 은혜와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현서 교구장(청년부)

코로나19 극복 / 한가위 사랑 나눔 광림 선한 나눔 운동

"일상은 멈춰도, 나눔은 멈추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지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전합니다.

수거기간

2021년 8월 29일(주일) ~ 9월 12일(주일)

장소

광림교회 정문, 사회봉사관 2층 엘리베이터실 앞 및 주차장 입구

기부방법

- ▶ 교회를 방문하여 나눔 박스에 자유롭게 기부
- ▶ 현금을 통해 동참(감사현금 봉투에 '광림 선한 나눔 운동' 기입)
- ▶ 대량 기부 시 목회선교지원실로 개별 연락 (02-2056-5733)

수거물품 : 생필품 및 식품

▶ 생필품 : 치약 / 칫솔, 삼푸, 휴지, 마스크, 손소독제 등

▶ 식품 : 쌀, 즉석밥, 라면, 김, 통조림, 레토르트 및 인스턴트 등

▶ 비수거 물품 : 채소, 생선 등 상하기 쉬운 음식 X 포장일 잘 되어있지 않은 음식 X

✚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예배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 목회현장 -



황영재 목사 (광림북교회)

최근 '신의 화살'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 표지에 쓰여있던 글이 인상 깊었는데, '아직도 신은 화살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자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일리아드'에 나온 트로이 전쟁에서 질병의 활을 쏜 아폴론의 보복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칼(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사태도 그렇고, 끊이지 않는 기아와 굶주림의 문제,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사태까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화살이 계속되는 것만 같습니다.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오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진정한 회개 없는 한 지속될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한 적이 있습니다(역대상 21장). 하나님은 그 일을 악하게 여기시고, 다윗의 교만을 심판하시고, 벌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택권을 주시는데, 3일의 전염병, 3개월 원수의 추격, 3년의 기근 중 하나의 징계를 선택하라하십니다. 다윗은 3일의 전염병을 선택했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7만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윗은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값을 지불하여 사들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번제를 드릴 때에, 비로소 여호와와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게 됩니다. 재앙이 멈춘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터, 이스라엘의 번제단이 됩니다. 결국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은 언제 다시 칼집에 꽂히게 되는가. 이 땅을 향한 신의 화살이 언제 거두어 지는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이 땅이 고침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코로나의 광풍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쉬지 않는 우리 광림제단이 회복의 중심에서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이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광림남교회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예배자, 광림남교회 유년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왕상 2:2).

2021년 8월 1일·8일, 광림남교회 유년부 어린이들은 '예배자 다윗'을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요!' 스피드 퀴즈를 풀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검은선보다 파란선이 더 길어보였지만, 파란선과 검은선의 길이는 같았습니다. 우리의 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퀴즈를 풀며 생각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콜리앗을 이겨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온라인으로 선생님과 함께 공과공부를 하며 모두 함께 마음을 합하여 예배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진행된 여름성경학교이지만,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셨던 '예배자 다윗'과 같은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콜리앗 앞에서, 물뿔들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처럼, 언약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셨던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이들의 모습과 상황을 뚫고 이전보다 더욱 열정으로 성경학교의 모든 프로그램과 공과공부를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2021년 광림남교회 유년부의 여름성경학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한준구 전도사(광림남교회)

광림서교회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예요"



광림서교회 교회학교는 <예배자 다윗>이라는 주제로 8월15일(주일)부터 8월29일(주일)까지 3주에 걸쳐 여름성경학교와 여름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유아유치부는 다윗과 콜리앗 입체퍼즐 만들기, 언약궤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고, 아동부는 콜리앗 만들기 활동과 성경골든벨, 찬양배우기, 성경학교 콘테스트 등 성경학교를 통해 배운 내용을 익히고 재능을 뽐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중·고등부는 공과진행과 가로세로 낱말퀴즈,



몸으로 말해요, 다윗 퀴즈대회 등 수련회를 통해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예전처럼 물놀이를 하고, 함께 간식을 나누는 시간들은 가질 수는 없었기에 보다 말씀교육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서별로 공과를 제작해 말씀과 분반공부에 집중했습니다. 현장에서 말씀과 찬양을 배우고 여러 활동과 게임을 실시간 공유하며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를 위해 활동 키트, 손수 제작한 티셔츠 등 '성경학교 키트'를 제작하여 각 가정에 전달하였고, 가정에서도 영상 예배와 활동을 통해 함께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동부 이종걸 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예배와 신앙교육이 오랜 기간 위축되어, 민음의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 양육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배자 다윗>을 주제로 진행하는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고통에 절망하지 않고 모든 상황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처럼 교회학교 아이들이 회복의 길, 승리의 길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다윗처럼 예배의 승리를 통해 인생의 승리를 얻는 교회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아라 전도사 (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흰 구름 뭉게 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해 명량하게 솟아 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벼웁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아아 희망의 성경말씀 배우러 가자!'

어린 시절 여름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여름성경학교를 기다렸습니다. 놀아도 교회에

서 놀아라 말씀하시던 부모님의 말씀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의 전에서 마음껏 뛰어 놀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신나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좋은 신앙의 추억이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자산이 될 것임을 알기에 코로나 사태는 더욱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는 그대로 두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경학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배자 다윗'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세상이 능히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되기를 다짐하며 진행하였습니다. 현장

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여름성경학교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성경학교 키트'를 만들어 가정으로 심방하며 배달하고 안부도 나누고 있습니다. 중·고등부와 아동2부에서는 예전 '여름수련회' 추억하며, 매주일 특별활동들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찌감치 '광림북-올림픽'을 3주간 진행하며 즐거운 활동의 시간을 가졌고, 특별강사님을 모시고 찬양-말씀-기도 집회를 진행하면서 신앙의 열정과 거룩한 비전을 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북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웅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민재 전도사 (광림북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광림서교회>

광림서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지구에 위치한 광림교회 지성전입니다. 광림서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라는 광림교회의 영적 기초 위에 2017년 8월 2일 봉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림교회의 5대 전통인 적극적 신앙, 풍요로운 창조, 성실한 생활, 사랑의 실천, 일치된 순종을 기반으로 청라와 인천, 서북방에 하나님 나라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

광림서교회는 예배와 찬양, 기도와 말씀, 전도와 선교, 봉사와 구제 등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이며,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광림서교회는 지상4층에서 지하1층까지 5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0여석의 대예배실과 소예배실, 교육부서실, 성가대실, 세미나실, 애찬관, 주차장, 옥상야외공연장 등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예배, 재정, 음악, 새가족, 남·여선교회, 경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가대는 3부 시온성가대가 예배를 돕고 있고, 저녁예배 찬양팀 '크로스워십'이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광림서교회는 예배와 찬양, 기도와 말씀 중심의 믿음생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활절과 추수감사주일은 시온성가대의 칸타타를 통해 감사 찬양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옥상야외공연장에서 가을음악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선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림서교회는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버지, 어머니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교사, 속장·지도자 등 날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와 헌신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소중한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매달 이달의 말씀을 공유하여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며, 매달 셋째주 선교회 모임을 매달 마지막 주 지·선·경 모임을 통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다음세대 세워가는 교회

청라지역은 여느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의 구성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차 교회학교, 청년, 청장년 세대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교회학교가 중심이 되어 청라호수공원 주변 전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회학교 트리니티와 청년속회 등 말씀 가운데 믿음의 다음세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청년 예배, 국내의 교육선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넘어 교단 차원으로 환경선교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창조세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며, 거리 청소와 텃밭 가꾸기 등 환경 청지기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림서교회가 청라와 인천 지역을 넘어, 서북방 선교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덕민 목사(광림서교회)



광림교회에서 보낸 의약품으로 의료선교 다녀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보내 온 감사편지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내륙국가입니다. 사하라 사막 아래에 위치하여 고온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물과 나무를 비롯한 여러 자원이 부족한 매우 척박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극심한 빈곤에 처해있는 최빈민국 중 하나입니다. 또한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서아프리카 대부분의 지역은 농지 감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이슬람이 60%가 넘으며 여러 토착 종교로 인해 기독교 복음이 뿌리내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이 교회와 기독교인 마을을 공격하여 기독교인 어린이 수천 명이 난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이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광림교회에서 보내주신 의약품을 가지고,



7-8월 동안 코코마 지역과 판조라 지역 의료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약품을 보내주셔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기이고 환절기여서 말라리아, 바 이러스성질환, 피부질환, 안질환, 혈류질환 등이 상당히 많고, 맨발로 생활하기에 어린 아이들에게 발의 상처, 파상풍도 많습니다.

병원도 없고 보건과 위생에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진료 봉사를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교회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무슬림들도 함께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고, 아이들에게는 구충제와 영양제까지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코코마 지역에서는 350명, 판조라 지역에서는 400명이 진료 혜택을 받았고, 모든 진료의 여정을 주관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광림교회 김정석 감독님과 모든 성도님들, 의료선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로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이곳에서 광림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상봉 선교사(부르키나파소)



김선도 감독의 아흔 인생과 '장천 울림' 목회신학 이야기

12 김정운 교수



김정운 교수는 <목사 김선도1> '목사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라는 글로 아버지인 김선도 감독님을 회고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이든 한번 중요하다 여기시면 오직 그것만 생각하십니다. 해결될 때까지 온 신경을 그 일에만 집중하십니다. 이 집중력이 오늘날의 아버지를 가능하게 했다고 나는 생각 한다"고 말한다.

김정운 교수는 김선도 감독님의 둘째아들이다. 문화심리학자, 여러가지문제연구소 소장이자 화가이다.

지금은 여수 남쪽 섬에 살면서 그림 그리며 글을 쓴다. 아래는 김정운 교수의 글 요약본이다.

'목사의 아들로 산다는 것'

갑자기 나를 '목사 아들'로 불렀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대전에서 살게 되었다. 당시 아버지가 대전 공군기술단의 군목으로 일하게 되셨기 때문이다. 대전에서의 생활은 행복했다. 그곳에서 나는 '목사 아들'이 아니었다. 당시 아버지는 내게 '목사'라기보다는 '군인'이셨기 때문이다. 그 이후 아버지가 중구 쌍림동 광림교회로 부임하시면서부터 나는 '목사 아들'이 되었다. 내 인생의 궤로움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형교회 중 하나인 광림교회 담임목사 둘째 아들로서의 삶은 누구에게나 흥미로운 일이었다. 내가 '누구의 아들'임이 밝혀지면 다들 다시 날 쳐다봤다. 그들의 그 '흥미로운 표정'을 난 매일같이 겪어야 했다.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여전히 이 책에 내 글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의 독자들로 는 광림교회 교인들은 물론 목회자들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내 이야기가 자녀를 둔 목회자들에게는 충분히 참조할만한 것이 되리라 생각된다. '목사 아들'이라는 특별한 존재를 나처럼 고통스럽게 살아왔고, 그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 김선도 목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김선도 목사의 아들로 살아온 내 이야기'란 거다.

아버지에게 '뉘시'를 배웠다

아버지에 대한 내 기억은 '뉘시'로부터 시작된다. 사람 뉘는 어부에 관한 신앙적인 이야기

가 아니다. 진짜 고기 잡는 뉘시를 쫓은 아버지에게서 배웠다. 어릴 적 대전에 살던 시절이다. 위암에 걸리신 할아버지가 대전 집에 오셨다. 음식을 전혀 드실 수 없는 할아버지를 위해 아버지는 어죽을 끓여야 한다며 뉘시대를 들고 집 위쪽에 저수지로 가셨다. 형과 나도 따라나섰다. 아버지는 뉘시를, 형과 나는 저수지 위쪽 냇물에서 물놀이를 했다. 아버지는 금방 엄청나게 큰 봉어와 몇 마리의 고기를 더 잡으셨고 어죽을 끓이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할아버지는 무척 맛있게 드셨다. 그리고 며칠 뒤 돌아가셨다. 대전에서의 삶은 가난했지만, 내겐 행복한 기억들이 남아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난 그때 '목사 아들'이 아닌 '군인 아들'이었다. 그래서 행복했던 거다.

서재가 있는 인생이 멋지다는 것을 배웠다

쌍림동 광림교회로 부임하시고 목사관에 아버지의 서재가 생긴 것은 참 좋았다. 목사관 이층에 있는 서재는 내겐 천국과도 같았다. 난 그런 아버지의 서재에서 하루 종일 뉘굴며 놀았다. 책상에 앉아 설교 준비를 하시는 아버지를 흉내 내며 책을 읽었다. 벽 한쪽에는 영어 원서가 가득했다. 책장의 한편에는 외국어 책이 가득해야 품 난다는 것도 그때 어렵듯이 깨달았다.

책을 즐겨 읽는 어린 내게 아버지는 수십 권의 세계문학전집을 사주셨다. 이때부터 내겐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습관이 생겼다. 소설책을 읽을 때는 동시에 여러 권의 책을 읽는 것이 좋은 습관은 아니지만 공부하며

스스로의 생각을 정립하는데 꽤 좋은 방법이다.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관심에 따라 책을 읽어 가며,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기 때문이다. 유학시절 그때의 산만한 독서 습관이 갖는 효과를 확인했다. 동시에 여러 저자의 논문이나 책을 펴놓고, 비교해 가며 읽으면 각 저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생을 사는데 외국어가 필요함을 배웠다

내가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를 그만 둘 수 있었던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라도 있는 줄 안다. 이 맥락에서 내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넘어가야겠다. 광림교회의 재산은 우리가족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모두 교단에 속해 있다. 오래전부터 나는 내 삶이 광림교회와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엮이는 것을 원치 않았다. 부모님은 대학시절 내 뉘스로 교회에서 지급되는 학비를 다른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돌려 버리셨다. 난 독일에서 13년간 유학생할 내내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우스운 일이지만, 다들 '광림교회 목사 아들'이라고 하면 대단한 꽃가마라도 탄 줄 알아서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다.

대학을 마치고 독일에서 유학하겠다고 선택한 것은 아버지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롭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내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유야 어쨌든 간에 독일유학은 내 나머지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선택이었다. 독일어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난 일본어도 한다. 앞서 말한 내가 '믿는 구석'이란 바로 이 언어능력을 이야기하는 거다. 영어, 독일어,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내가 만들어내는 콘텐츠는 영어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산물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 콘텐츠 생산 능력을 믿고 나는 교수를 그만뒀다. 번역만 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 이란 생각에서다. 섬에서의 품 나는 지금의 삶을 누리는데 결정적인 무기는 외국어이다. 이 외국어의 필요성을 아버지로부터 배웠다. 아버지의 설교가 다른 목사님들과 달랐던 이유는 설교 준비를 위한 자료의 언어가 달랐기 때문이다. 내가 영어, 독일어, 일본어로 인터넷 자료를 찾아 비교하듯이 아버지도 일본어책, 영어책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읽으셨다. 아버지는 지극히 평범한 언어를 사용하시지만, 설교의 예화나 논리는 특별하다. 참고 문헌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를 만들 '아버지 흉내'

'목사 아들'로 살면서 나는 '목사 아버지'와 한 시도 쉬지 않고 정신적으로 부딪혔다. 60세가 가까이가 되니, 내가 지금까지 이뤘은 것들이 '아버지 흉내'를 통해 가능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내가 아버지를 결코 닮지 못한 것이 있다. '자기질제'(self-discipline)이다. 아버지는 철저하신 분이다. 그 연세에도 여전히 새벽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키신다. 아버지는 허투루 시간 보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신다. 항상 손에 책을 잡고 계셔야 마음이 편하신 듯하다. 어딜 가든 책가방을 들고 가신다. 그 안에는 언제나 성경책과 영어책, 그리고 일본어책이 들어 있다. 잠시라도 빈 시간이 나면 책을 꺼내 읽으신다. 돈과 관련해서는 말도 못하게 철저하다. 책을 사는 것 이외에 아버지가 스스로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을 본적이 없다. 아버지에게 돈의 용도는 딱 세 가지였다. 현금 하고, 남을 돕고, 그리고 설교준비를 위해 책을 사는 것이다. 이토록 철저한 아버지의 '자기질제', '자기훈련'의 모습을 보고 자랐지만, 이 부분 만큼은 아버지의 흉내조차 내지 못한다.

아버지와 나

여러 날에 걸쳐 아버지께 관해 쓰면서 아버지와 나의 관계, 그리고 '목사 아들'로서의 내 삶에 관해 많은 생각을 했다. 그렇게 떨쳐버리고 싶었던 '목사 아들'의 삶이지만, '아버지의 아들'이었기에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다는 생각에 몇 번이나 울컥했다.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난 아버지의 그림자와 평생 투쟁했다. 그 투쟁만으로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하면 내 아버지는 정말 엄청난 분이시다.

정리: 백명순 기자



2014년 김선도 감독님 '5분의 기적' 출판기념회에서 축사하는 김정운 교수

